

Eastman, 바이오 멤브레인 출시

Eastman Chemical이 고기능성 바이오폴리머 멤브레인 <HydraPack>을 출시했다.

Eastman은 HTI 기술력과 Eastman의 셀룰로스(Cellulosic) 기술을 혼합한 고기능성 <HydraPack>를 2011년 1월 런칭했다.

Eastman 관계자는“ 재난이나 환경오염 등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HydraPack을 이용해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astman은 2010년 대지진을 겪었던 아이티에 HydraPack 공급해 2만4000명에게 도움을 주었으며, 최근에는 케냐 정부와 함께 Mudimbia 지역에 HydraPack 2만개를 공급기로 했다.

특히, HydraPack은 오아이스라 불리는 여과기술과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Acetate)를 이용한 멤브레인(Membrane)을 갖추고 있어 아주 작은 입자도 걸러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여기에 HydraPack는 바이오폴리머(BioPolymer)로 만들어져 친환경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Eastman 관계자는“ 아주 작은 입자도 걸러낼 수 있는 멤브레인과 여과기술, 그리고 친환경적 원료를 사용해 앞으로 스포츠음료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11/1/31_2/7>